

논리학, 존재론, 그리고 양상*†

강 수 휘

논리학이 존재론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메타논리학은 집합 개념들을 통해서 논리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논리학을 기술함으로써 논리학에 집합 존재론을 부가하게 된다. 유명론자들의 관점에서와 같이 논리학의 외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집합과 같은 수학적 존재자는 형이상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자이지만,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집합론적 메타논리학은 논리학의 내적 측면에서조차 올바른 메타논리학으로 간주될 수 없다. 본 논문은 먼저 메타논리학이 논리학의 의미론을 제시하는 바로 그 측면에서 논리학에 특유한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 동안 논리학이 존재론적 과 무관하다는 생각과 집합론적 메타논리학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견해를 비판한다. 나아가 논리학이 타당성과 같은 양상적 속성들을 지니기 때문에, 메타논리학은 이러한 논리학의 양상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양상성 일반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메타논리학에서 논리학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가능세계 개념이 요구되는데, 가능세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은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양상성과 관련하여 존재론적 부담이 없지만, 양상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이론을 통해서, 메타논리학에서도 논리학이 존재론과 무관하다는 직관을 구제하면서도 양상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투고일: 2013. 10. 10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3. 12. 7 게재확정일: 2013. 12. 8

† 이 논문은 “논리학의 형이상학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2013년 2월 20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던 한국논리학회 겨울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리학, 양상성, 그리고 존재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 기회를 마련해 준 한국논리학회와 발표를 듣고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박우석 선생님과 논문과 관련된 값진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이 논문을 쓰고 고치는 데 있어 이론과 실천 모든 측면에서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나의 지도교수 선우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주 제 논리철학, 존재론, 고전 논리학

주요어 존재론적 보수성, 메타논리학, 집합, 가능세계, 양상 존실재론

I. 논리학과 존재론

1. 논리학과 메타논리학의 존재론적 함축들을 구별하는 것은 정당한가?

논리학은 타당한 추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논리학을 사용하여 추론하는 경우, 우리는 그 추론을 적용하는 분야에서 가정된 존재자들 이외의 어떠한 존재자들도 전제들과 결론들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가 물리 이론들을 유명론적으로 공리화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전제들에 어떠한 수학적 존재자들도 필요치 않을 것이고, 그가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세계에 관한 결론들이 유명론적이므로, 그의 최종 결론들에도 수학적 존재자들은 요구되지 않는다.¹⁾ 이런 점에서 추론으로서의 *논리학*에 특유한 존재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논리학’과 관련된 존재론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존재론적 문제는 메타논리학과 관련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늘날 메타논리학 혹은 수리 논리학은 집합론을 통해서 제시되며, 이는 집합론의 언어를 통해서 논리학의 의미론이 제시되고, 논리학이 지니는 다양한 특징들, 가령 논리적 귀결logical consequence이나 증명가능성provability, 만족가능성satisfiability 등과 같은 특징들이 집합 개념을 통해서 정의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수학적 존재자들, 특히 집합들이 메타논리학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집합들sets, 모형들models, 함수들functions과 같은 추상적인 수학적 존재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유명

1) Field(1982)를 참고하라. 이 부분은 Field(1989)에 재수록 되어 있으며, p. 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론자들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메타논리학에 수학적 존재자들이 필수불가결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긴다.²⁾

그러면 논리학이 메타논리학의 주제적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별개의 탐구이기 때문에, 논리학과 존재론의 관계에 대해서 논리학에 고유하게 귀속되는 존재론적 문제는 없고, 메타논리학에는 존재론의 문제는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존재론적 문제와 관련하여 논리학과 메타논리학이 근본적으로 무관하다는 주장은 철학적으로 다소 철저하지 못한 생각에 근거를 둔 것이기 십상이다. 메타논리학은 집합과 같은 수학적 존재자들을 그 의미론에 포함시킴으로써 논리학에도 특유한 존재론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이는 단순히 수학적 존재자들의 존재론적 지위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논리학의 존재론적 문제는 수학적 존재자들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려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2. 메타논리학과 논리학의 관계

꽤 많은 사람들이 논리학과 메타논리학을 구별하면서, 이 두 분야가 하나가 다른 하나에 소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떠한 ‘실질적’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아가 수학적 존재자들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존재론과 형이상학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논리학과 메타논리학 간의 구별에 근거하여 메타논리학의 존재론적 문제를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그들에게 메타논리학은 논리학에 대한 독립적인 이론일 뿐이고, 따라서 논리학을 사용하는 데 있어 메타논리학에서 가정하는 존재자들에 대한 개입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논리학이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존재론적 고려를 하게 만들지 않으며, 집합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메타논리학은

2) Field(1982), Ibid.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해주는 하나의 수리 이론일 뿐이므로 혈기왕성한 유명론자가 아니고서야 굳이 메타논리학에서 가정하는 수학적 존재자들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³⁾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논리학과 메타논리학의 관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메타논리학이 수학적 존재자들을 포함할 경우, 논리학 자체도 ‘근본적인 수준’에서 존재론적 문제를 포함하게 되어 메타논리학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론적 고려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논리학에 있어서도 강제적인 존재론적 개입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먼저 존재론적 측면에서 논리학과 메타논리학이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와 같은 생각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뒤에 적극적인 논증을 제시함으로써 논리학과 메타논리학의 관계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⁴⁾

논리학이 어떠한 존재론적 문제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과 메타논리학이 수학적 존재자들에 대한 존재론적 함축을 지닌다는 것 사이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⁵⁾:

-
- 3) ‘혈기왕성한 유명론자full-blooded nominalist’로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담론에서도 어떠한 식으로든 추상적 존재자들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메타논리학에 대해서 참이라고 발화할 내용을 지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학을 사용해서 메타논리학에서의 추론을 하지는 않을 터이므로, 그들이 메타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학적 존재자들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 아닐 것이다.
 - 4) 본고의 한 심사자는 메타논리학과 논리학이 존재론적으로 별개의 것임을 주장하는 이하의 두 논증들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관련 논의를 상세히 참고할 수 있도록 비판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하였다. 나는 아래에서 소개되고 있는 두 논증들이 메타논리학은 논리학의 기초 혹은 토대라고 주장하는 나 스스로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비판들은 메타논리학에 대한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주로 논문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 대표적 반론 혹은 불만의 두 유형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논점을 선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필자의 논의가 메타논리학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에 철학적으로 좀 더 반성되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자각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 5) ‘메타언어 논증’과 관련된 논의는 강수휘(2010), pp. 48-52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

[메타언어 논증] 집합론은 메타논리학을 기술하는 메타언어^{metalanguage}이다. 메타논리학을 기술하기 위해서 집합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라틴어라는 대상언어^{object-language}에 대해서 한국어를 메타언어로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만일 대상언어와 메타언어 사이의 관계에서 대상언어와 메타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라는 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논리학과 집합론 간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집합론과 같은 수학적 존재자들을 받아들이는 집합론을 통해서 메타논리학을 기술하는 것은 논리학이 그것에 고유한 어떠한 존재론적 문제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집합론을 메타논리학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라틴어라는 대상 언어에 대해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일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메타논리학을 집합론의 언어로 기술하는 일은 단순히 논리학의 언어라는 대상언어에 대해서 집합론이라는 메타언어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일을 포함할 뿐 아니라, 논리학에 대한 환원적 기초로서의 집합론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포함하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를 사용하여 라틴어에 대해 서술하는 경우, 물론 우리는 한국어에 포함된 개념, 예를 들어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로 정의되는 조사(助詞)와 같은 한국어에 속한 문법적 개념을 사용하여 라틴어를 정의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집합론을 사용하여 메타논리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논리학의 언어를 (집합론적으로) 제시하는 일부터 (논리적 귀결과 같은) 논리학의 개념들을 정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논리학의 언어 자체를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집합론의 언어로 규정하여 기술하고 집합론적 개념들로 환원시킨다.

시 소개하는 것이다. 메타논리학에서 집합론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논리학이 집합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재의 논의뿐만 아니라 집합이라는 존재자가 메타논리학에 사용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는 다양한 논증들에 대한 상세하고 비판적인 논의가 강수희(2010)에서 다루어진다.

[말하는 방식 논변] 집합론을 통해서 메타논리학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말하는 방식, 즉 스타일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집합 개념을 사용해서 메타논리학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집합에 대한 존재론에 개입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메타논리학에서 어떤 타당한 논증을 “어떤 전제들의 집합을 만족시키는 모든 모형model이 결론을 만족 시킨다”고 서술할 때, ‘전제들의 집합’은 전제들을 말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논리적 귀결에 대한 모형론적 정의 역시도 논리적 필연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메타논리학은 ‘증명’, ‘타당성’, ‘논리적 참’ 등을 집합 개념을 통해서 규정하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가 순전히 말하는 방식, 표현 방식에 불과한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집합론을 사용하여 여러 다른 수학 분야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체계화하는 일은 단지 그 분야들을 기술하는 스타일의 문제일까? 그래서 수학의 기초로서 집합론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목적으로 카테고리론category theory을 사용하는 일은 단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두 방식에 불과한 것인가?6) 그래서 가령 ‘ ϕ 가 논리적 참이다’라는 것을 ‘ ϕ 가 모든 모형에서 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 ϕ 가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논리학의 여러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일은 실천적이고 화용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열 현상을 분자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과 열소caloric를 통해 설명하는 이론을 동일한 현상에 대한 두 가지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합론을 통해서 메타논리학을 제시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참’ 혹은 ‘필연적으로 참’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명료화하기 위해서 모형이라는 집합론적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말하는 방식 논변을 통해서 누군가가 “ ϕ 가 모든 모형에서 참이다”라는 것은 단지 “ ϕ 가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참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말 앞에 수레

6) 카테고리론category theory은 추상 대수abstract algebra의 한 분야로, 수학의 각 분야들을 통합하는 환원토대의 역할을 하는 집합론의 경쟁이론이다.

를 놓는 격(put the cart before the horse)일 것이다.⁷⁾

게다가 설령 메타논리학이 논리학에 관하여 말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이러한 주장이 논리학에 관한 하나의 철학적 입장으로 주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장은 스스로 한 가지의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한 논리학에 관한 메타논리학적 기술이 왜 참인지, 복수의 메타논리학을 전부 참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입장이 어떻게 그러한 메타논리학들을 전부 구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여러 메타논리학들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등의 설명을 제시해야하는 정당화가 필요한 주장이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시작부터 메타논리학과 논리학을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논리학이 존재론과 무관하다(ontology-free)는 사실과 집합론적 메타논리학이 집합 존재론을 부가한다는 사실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시중의 생각이 그 자체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오히려 메타논리학이 논리학의 기초로서 고려되는 한, 메타논리학이 집합과 같은 수학적 존재자들을 가정하게 되면 이는 논리학이 존재론적 함축을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과 충돌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메타논리학의 존재론적 문제가 논리학 자체에도 존재론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바로 이 점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3.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

우리는 논리학이 특정한 주제에 국한된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제 중립적(topic neutral)이라는 것을 안다. 또한 우리는 논리학이 어떠한 (합리적) 담

7) 정의항이 피정의항 이상의 것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메타논리학이 논리학의 특성을 집합론적 개념을 통해서 정의할 때, 이러한 주장을 하게끔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정의항의 분석으로서의 정의항은 반드시 피정의항보다 직관적이거나 혹은 동의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Quine(195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명(explication)’과 같은 정의는 “피정의항을 직접적 동의어로 재진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상세화하거나 보충함으로써 피정의항을 더 낮게 하는 것이다.” Quine(1980), p. 25를 보라.

론에도 무차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다 universally applicable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메타논리학이 논리학의 기초를 제공하는 이론인 한 그것은 최소한 논리학이 지니는 주제중립성과 보편적 적용가능성과 배치되는 내용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이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집합론을 통해서 제시되는 메타논리학이 사실은 논리학에 대한 수학적 분석이며, 그래서 존재론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주제 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논리학의 기초로는 만족스러운 이론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수학자들의 낙원’인 집합론의 우주를 가장 큰 담론의 영역universe of discourse으로 삼아 제시되는 수학의 한 분야로서의 수리 논리학과 집합들과 이를 통해서 정의되는 함수나 모형과 같은 수학적 존재자들이 전혀 없는 유명론자들의 영역domain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학의 기초 이론으로서의 메타논리학은 분명 그 관심사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추상적 존재자들을 거부하는 유명론을 근거로 하여 집합론을 사용하는, 수리 이론으로서의 메타논리학을 논리학의 기초로 삼는 일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이유는 논리학의 언어를 집합론적으로 정의하고, 논리학에 대한 의미론을 집합 개념을 사용해서 명료화하며, 논리학의 여러 특성들을 집합론적 개념들을 통해서 체계화하게 되면, 논리학이 여러 분야에 적용될 때마다 그 적용 영역에 ‘불박이 장furniture’으로서 집합 존재론을 함께 부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논리학이 수학을 포함한 특정한 주제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어떠한 분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주제중립성과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지닌다면, 그러한 논리학에 관한 기초로서의 메타논리학 역시도 특수한 존재를 가정하여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즉 존재론적으로도 중립적이라는 특성을 지녀야만

8) 이 말은 메타논리학이 <주제중립성>과 <보편적 적용가능성>과 같은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아니다. 다만 메타논리학에서 정의하고 규정하는 논리학의 개념들과 특징들이 논리학의 이러한 속성과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다. 논리학이 지니는 이러한 메타논리적 특성을 나는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ontological conservativeness of logic)’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 논리학은 그것이 적용되는 담론의 영역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혹은 담론의 영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존재자들 이외의 존재자들을 논리학이 새로이 부가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물학이나 경제학과 같은 개별 학문에 논리학을 적용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 때 우리는 각각의 개별 과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존재자들, 이를테면 세포들(cells)이나 시장(market) 등에 추가하여 별도의 존재자들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집합론을 논리학의 기초로 삼아 제시된 메타논리학의 경우, 논리학을 기술하는데 요구되는 논리학의 어휘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러한 어휘들의 집합(set)과 집합론적으로 정의된 함수(function)로서의 해석, 집합들의 순서 n-중체로서의 모형(model) 등을 통해서 의미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적 존재자들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방식으로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게 된다.⁹⁾

4. 논리학과 존재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집합들과 같은 수학적 존재자들을 메타논리학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논리학이 적용되는 해당 분야의 존재자들의 영역이 확장되어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는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론적으로 무고한 메타논리학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논리학과 메타논리학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는 (보다 정확히는, 논리학과 메타논리학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반성되지 않은 주장만을 근거로 논점을 선취하는 것만으로는) 논리

9) 강수휘(2010a), p. 27와 강수휘(2010b)의 1절, pp. 168-173을 참고하라.

학이 존재론과 무관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집합론적인 메타논리학을 고수한다면, 논리학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담론의 영역에 집합론이 지닌 존재론이 추가되고, 결국 논리학은 존재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우리의 믿음에 반하여 존재론의 문제와 씨름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학의 존재론적 문제는 언제나 메타논리학 특히 의미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1차 술어논리학과 관련된 현대적 논의에 국한되지 않는다. 논리(철)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른바 ‘새로운 논리학’이 출현하기 전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역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에 봉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규범) 논리학과 메타논리학 사이의 구별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며 후자는 후대의 논리학자들, 특히 중세의 논리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¹⁰⁾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명사논리학term logic’이라고도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명제를 계사(혹은 동사)와 함께 명사들terms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포르피리오스Porphyry는 그의 『이사고게』Isagoge에서 훗날 보편자 논쟁의 씨앗이 될 술어들에 대한 의미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는 술어들 가운데 어떤 것은 ‘소크라테스Socrates’나 ‘그he’나 ‘이것this’과 같은 개별자들인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만 말해지고, 다른 것들, 즉 유genus, 종species, 차이성difference, 고유성property, 우연속성accident과 같은 것들은 여러 사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된다고 말한다.¹¹⁾ 그리고 다수를 서술하는 이 후자의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한다. 유와 종은 실재적인가 아니면 단지 사고 안에만 위치해 있는가? 실재적이라면 그것들은 물질들인가 아니면 비물질적

10) 중세 시기에는 ‘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메타논리적 탐구들이 이루어졌다. Spade(2002)를 참고하라.

11) 유의 예는 ‘동물animal’이고, 종의 예는 ‘사람man’이며, 차이성의 예로는 ‘이성적인rational’, 고유성의 예로는 ‘웃을 수 있는risible’, 그리고 우연속성의 예로는 ‘흰white’, ‘검은black’, ‘앉아있는sitting’ 등이 있다. 다수를 서술할 수 있는 이 다섯가지 술어를 ‘서술가능자predicables’라고 한다. Spade(1994), p.2를 참고하라.

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감각 대상들과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감각적 대상들과 연관되어 실재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들이 (오늘날의 용어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의미론에서 술어들의 의미론적 값으로서 보편자^{universal}를 할당했기 때문에 제기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보편자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는 메타논리학에 국한된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다. 만일 술어들이 보편자들을 의미한다^{signify}고 말하는 이러한 의미론이 참이라면, 보편자는 일종의 논리적 존재자가 되어, 보편적인 차원에서 논리학이 적용될 때마다 그 적용되는 담론의 논의 영역에 존재하는 존재자들에 더하여 그 의미론에 의해서 해당 술어가 의미한다^{signify}고 간주되는 보편자들의 존재 역시 포함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논리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우리가 보편자 실재론을 받아들일 (형이상학적 근거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논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편자의 존재를 포함하는 메타논리학은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이상학적 고려와는 별개로) 논리적 근거에서 보편자의 존재를 거부할 수 있다.¹²⁾ 이러한 논리적 고려는 술어들의 외연으로 보편자들을 할당하지 않고서 의미론을 제시하는 메타논리학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중세 후기의 오캄^{Ockham}이 보편자 문제와 관련하여 ‘보편자 없는 메타논리학’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신의 논리학 저술인 『논리학 대전』^{Summa Logicae}을 통해서 술어의 의미론적 값으로 보편자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지시^{plural reference}를 통해서 개별자들을 할당하도록 하는 의미론을 제시함으로써 의미론적 차원에서 제기

12)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이유로 보편자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편자에 대해 반실재론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 논리적 고려를 통해서 보편자 존재론을 거부하는 사람은 보편자가 ‘논리적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자 존재론을 거부하는 것이지, 딱히 보편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형이상학적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집합론적 메타논리학과 관련해서도, 집합 존재론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이유들, 다시 말해서 유명론을 지지하고 실재론을 거부할 형이상학적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집합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자로 간주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적 이유로 인해서 집합 존재론을 거부할 수 있다.

된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한다.¹³⁾

중세에 있었던 메타논리학에서의 보편자 존재론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현대 논리학에서도 제기되었다. 콰인Quine이 중세 보편자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입장들인 실재론realism, 개념론conceptualism, 유명론nominalism을 수학 기초론에서의 주요한 세 입장들인 논리주의logicism, 직관주의intuitionism, 형식주의formalism에 각각 대응시키면서 상당한 시간적 간극을 지닌 두 문제들을 평행하게 비교하였을 때 염두에 둔 것은 술어의 외연으로서의 집합의 존재론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오늘날의 수리 논리학의 문제를 술어의 외연으로서의 보편자의 존재론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중세 논리학의 논의와 마찬가지로의 의미론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⁴⁾ 그렇다면 우리는 메타논리학에서 제기된 수학적 존재자들이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과 상충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 존재자들과 같은 특수한 존재자를 포함하지 않는 메타논리학을 모색해야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논리학과 메타논리학 사이의 관계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과 그것들에 대한 문예비평 사이의 관계와는 분명히 다르다. 논리학은 단순히 메타논리학의 소재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논리학을 통해서 그 기초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특수한 분야에 논리학이 적용될 때, 논리적 추론에 포함된 전제들과 결론들은 언어 표현과 그 분야의 담론의 영역에 포함된 존재자들 사이의 메타논리학에서 규정하는 의미론적 관계들을 통해서 그 외연적 의미가 결정되고,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역시도 메타논리학이 규정하는 의미론을 통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논리학의 존재론과 무관한 특성, 즉 존재론적 보수성은 매우 실질적이고 긴밀한 방식으로 메타논리학과 연관되어 있으며, 메타논리학에서 발생하는 존재론적 문제는 논리학의 존재론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13) SL의 I부를 참고하라.

14) Quine(1948)을 참고하라. 이 논문은 Quine(1980)에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은 pp. 14-15를 참고하라.

II. 논리학과 양상

“논리학은 가능한 것들에 관한 학문이다.”

Hartry. Field, “Realism and Anti-Realism about Mathematics”

“양상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Mark Johnston, “Is There a Problem about Persistence?”

1. 논리학의 양상

헌터Hunter는 다음과 같이 메타논리학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논리학의 진리들과 논리학의 진리들을 표현하도록 사용되는 문장들을 구별할 수 있는데, 거칠게 말해서 논리학의 진리들을 표현하도록 사용되는 문장들에 관한 이론이 논리학에 대한 메타이론이다. 이 때 논리학의 진리들을 표현하도록 사용되는 문장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언어’의 식들의 의미를 전혀 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형식언어formal language의 식들formulas이어야 한다. 길고도 흥미로운 하지만 무질서한 2천년이 넘는 역사가 끝나고, 논리학에 대한 메타이론이 정확하고 새로우며 심오한 결과들을 산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약속하게 된 20세기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¹⁵⁾

우리는 ‘메타논리학’에 대한 ‘거친’ 소개의 적절함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위의 이야기에서 논리학의 진리들이 필연적인 이유가 메타논리학의 언어가 비지시적non-referential인 형식언어로 구성되기 때문이라는 서술에 주목하기로 하겠다. 일견 외연적인 의미를 전혀 지니지 않는 언어, 다시 말해서 해석이 부여되지 않은 문장들이 어떤 진리를 표현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서술은 논리학의 언어에 속한 문장은 해석이 고정되지

15) Hunter(1971), p. 3.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않은,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해석이라도 지닐 수 있으며, 따라서 논리적 진리, 즉 필연적으로 참인 문장들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미에서 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논리학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타논리학의 언어가 ‘형식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 ‘의미를 지니지 않음’이라거나 ‘의미와 무관함’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지니도록 고정되지 않은’ 언어라는 것이다. 형식언어에 등장하는 ‘형식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질료적(material)’인 것과 구별되는 것이지, ‘형식적’이라는 말 자체가 비지시적이라거나 의미와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 진리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건 간에 참일 수밖에 없는 형식언어의 문장들이고, 논리학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는 어떠한 해석이라도 부여될 수 있는 표현들로 이루어진 언어임을 알 수 있다.¹⁶⁾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논리학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메타논리학은 논리적 귀결이나 증명가능성과 같은 논리학이 지니는 다양한 양상적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논리학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그 자체로 양상적이라는 것과 메타논리학이 논리학의 이러한 양상적 특징들을 만족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집합론을 통해서 제시되는 오늘날의 메타논리학이 지니는 논리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존재자들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피함으로써 메타논리학에서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의미론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제 우리는 존재론적 문제와 더불어 논리학이 지니는 이러한 양상적 특징들까지도 메타논리학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집합론적 메타논리학은 논리학의 이러한 양상적 속성에 대한 설명의 요구를 집합 개념을 사용한 메타논리적 정의들을

16) 물론 논리학의 언어는 해석에 의해서 의미가 바뀌지 않는 논리적 어휘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통해서 해소한다. 예를 들어, 거짓인 것이 불가능한 논리적 진리들은 모든 모형에서 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 때 모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수학적 존재자이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정의는 앞서 논의했던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경우에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논리학의 양상과 관련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가능성이나 필연성과 같은 양상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익숙한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는 논리학이 지니는 양상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상적인 양상 개념과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문재인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러한 양상적 문장의 의미가 집합으로 정의되는 모형과 같은 수학적 존재자를 우리의 존재론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리학의 양상이 일상적인 양상과 다르지 않다면, 논리학의 양상에 대해 메타논리적으로 고려할 때에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양상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록 동기는 다르지만, 필드 역시 메타논리학과 관련하여 비슷한 통찰을 제시한다.¹⁷⁾ 그는 메타논리학에서 수학적 존재자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양상개념에 호소할 것을 주장한다.

“메타논리적 개념들에 대한 통상적인 플라톤주의적 취급들은 그것들이 가능성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인위적인 것처럼 보인다. 한 문장의 증명가능성provability을 그것에 대한 한 증명이 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기호열의 가능한 존재를 통해서 특성화하는characterize 것이 그러한 기호들의 추상적 대응물들의 추상적인 열의 현실적 존재를 통해 특성화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않은가?..... 나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¹⁸⁾

17) 그는 유명론적 관점에서 수학적 존재자들이 메타논리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으로 인해 유명론이 실패하게 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메타논리학과 수학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 Field(1989), p. 74-77을 참고하라.

18) Field(1989), p. 76.

사실 가능성이나 필연성 개념과 같은 양상개념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논리적 개념의 분석과 명료화 및 논리학의 본성 자체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가 지니고 있는 양상에 대한 분석이나 타당한 양상적 추론을 다루는 양상 논리학의 의미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법칙, 인과, 자유의지 등과 같은 철학사에 걸쳐서 중요하고도 난해한 문제로 알려져 온 다양한 주제들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양상과 관련된 이렇듯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능세계possible world 개념은 양상적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며, 명료화하는 필수 불가결한 철학적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⁹⁾ 따라서 의미론을 통해서 집합 존재론을 부가하는 집합론적 메타논리학 대신에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논리학의 양상적 특징들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만족스럽게 정의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가능세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일은 해 봄직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집합이라는 수학적 존재자들을 포함하는 메타논리학이 지니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집합론적 메타논리학은 논리학이 지니는 양상을 포함하는 다양한 논리적 개념들을 모형이라는 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존재자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만일 다른 양상 개념들과 양상 언어들을 집합론적인 방식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면) 언어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양상과 관련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포기하게 된다. 둘째로, 양상적 개념을 비양상적 개념을 통해 환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비양상적 용어들로 구성된 분석항과 양상적인 용어가 포함된 피분석항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도 보여주지 못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변으로 제시될 수 있다.

[개념적 간극 논변conceptual gap argument] “만일 모든 가능 세계

19) 선우환(2001)을 참고하라.

에서 P라면, P는 필연적이다(If P in every possible world, it is necessary that P)”를 개념적 참conceptual truth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공집합이 아닌 영역domain $|M|$ 과 k 항 관계 R^M 과 M 의 부분집합 M^k 을 영역으로 갖는 k 항 함수 F^M , $|M|$ 안의 대상들 c^M 의 모든 순서 n 중체 $\langle |M|, R_1^M, \dots, F_1^M, \dots, c_1^N, \dots \rangle$ 에서 P라면, P는 필연적이다”를 개념적 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양상적 개념인 집합론적 개념들을 통해서 양상적 개념을 환원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만족스러운 분석으로 간주될 수 없다.²⁰⁾

2. 가능세계에 관한 이론들

대다수의 철학자들에게 가능세계 개념이 양상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도대체 가능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 즉 가능세계 존재론이 철학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자의 존재론적 지위와 관련된 철학적 논의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추정상의 존재자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실재론적 입장과 실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실재론적 입장으로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세계와 관련된 존재론적 논의에서도 반실재론적 입장과 실재론적 입장이 구별될 수 있다. 가능세계에 대한 반실재론의 경우, 현재 잘 알려져 있는 입장들로 두 가지 이론들, 양상론Modalism과 양상 허구주의Modal Fictionalism가 있다. 양상론은 일차 술어 논리학의 보존적 확장 체계인 양상 논리학에서 도입하는 진리 함수적이지 않은 연산자들 ‘가능적이다(It is possible that, 기호로는 $\Diamond$)’나 ‘필연적이다(It is necessary that, 기호로는 $\Box$)’라는 원초어들만으로 다양한 양상 담론에 대한 추론들을 가능세계 개념 없이 다룰 수 있다는 입

20) ‘개념적 간극 논변’은 선우환(2001)에서 사용된 용어로, 여기서는 논리학에서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집합론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지니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논변으로 변형하였다.

장이다.²¹⁾ 양상 허구주의는 가능세계들을 일종의 허구적 존재자fictional entity로 파악하고, 양상에 대한 가능세계 분석, 특히 루이스David Lewis의 이론인 참된 양상 실재론Genuine Modal Realism에 의존하여, ‘에 따르면 according to’이라는 내포 연산자를 통해 양상을 분석하려는 입장이다.²²⁾

다른 한편으로 후자, 즉 가능세계에 대한 실재론적 입장을 택하는 이론들은, 다시 한 번, 실재하는 것으로서의 가능세계라는 존재자가 추상적 존재자abstract entity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존재자concrete entity인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²³⁾ 추상적 존재자로서의 가능세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입장들은 가능세계들이 실재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가능성들을 표상하는 현실적인 추상적 존재자들로, 명제들의 최대 일관 집합들maximally consistent sets of propositions²⁴⁾ 혹은 최대 가능 사태들maximally possible states of affairs²⁵⁾ 등과 같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구체적 존재자로서의 가능세계를 주장하는 입장들은 가능세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자들로 이루어진 세계들이라고 주장한다.²⁶⁾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들 중에서 어떤 이론이 양상에 대한 가장 올바른 분석을 제공하는 이론일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상 개념을 만족스럽게 설명해주는 이론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음 절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21) 양상론에 관해서는 Forbes(1985)를 참고하라.

22) 양상 허구주의는 Rosen(1990)을 참고하라.

23) 이 구분에 의해 분류된 두 이론들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존재한다. 실재하는 가능세계가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를 강조하는 구분으로 추상론abstractionism과 구체론concretism 구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에 대한 존재론에 대한 인식적 평가에 따라서 온건한 형태의 실재론moderate form of realism about possible worlds과 극단적 실재론extreme realism about possible worlds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또한 가능세계와 가능개체들의 존재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용 양상 실재론ersatz modal realism (혹은 대용론ersatzism)과 참된 양상 실재론Genuine Modal Realism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각각 van Inwagen(1986), Stalnaker(1976), 그리고 Lewis(1986)을 참고하라.

24) Adams(1974)를 참고하라.

25) Plantinga(1974)를 참고하라.

26) Lewis(1986)를 참고하라.

3. 가능세계에 관한 이론들과 양상 이론의 딜레마

우리는 이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존재론적 기준과 설명적 기준을 들 수 있다. 존재론적 기준이란 우리가 선택할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존재자가 과연 받아들일만한 것인지와 관련된 형이상학적 고려이며, 설명적 기준이란 우리가 선택한 이론이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양상 개념들을 얼마만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명료화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들에 따르면, 가능세계에 대하여 반실재론적 입장을 취하는 양상론은 올바른 양상 이론으로서 고려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왜냐하면 표준 양상 논리학의 양상 연산자들modal operators을 원초어로 삼아 다양한 양상 문장들을 다루기에는 양상 논리학의 표현력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가능적으로’와 ‘필연적으로’를 통해서 번역할 수 없는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양상 문장들이 존재한다. 이는 만족스러운 양상 이론이 지녀야 하는 양상 개념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론 선택 기준을 양상론이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을 추상적인 존재자로 파악하는 이론들 역시 다양한 양상 개념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해결하기 힘든 난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반사실적 조건문들counterfactuals에 대한 가능세계 분석에서 요구하게 되는 가능한 것들 간의 유사성 관계를 따지는 문제나 양상 비교문들modal comparatives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며, 양상 문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내포 문맥을 발생시키는 등의 곤란을 겪게 된다는 문제들을 지닌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상 개념들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계들과 개체들 사이의 비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추상적 존재자로서의 가능세계를 받아들이는 이론들이 만족스러운 이론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양상 개념에 대한 설명적 기준 중에서 양상 개념에 대한 명료화의 기준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⁷⁾

27) 선우환(2001)을 참고하라.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다양한 양상 문장들과 양상 개념들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의미론적으로 만족스러운 명료화를 제시하는 이론은 구체적인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에 대한 양화를 허용하는 루이스의 참된 양상 실재론이다. 하지만 설명적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참된 양상 실재론을 실제로 받아들이려 할 경우, 우리는 또 다른 이론 선택 기준으로 언급했던 존재론적 기준이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양상 개념에 대한 가장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는 이 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이 이론이 부가하는 구체적인 가능자들의 존재를 함께 받아들여야만 한다. 선우환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의 딜레마로 제시한다.

[양상 이론의 딜레마 A dilemma for theories of modality] 우리가 양상적 개념들에 대한 통합적 분석과 체계화, 명료화를 제공하는 이론을 요구하게 되면, 이러한 이론은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에 대한 양화를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론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이론은 구체적인 가능세계들과 구체적인 가능개체들에 대하여 양화를 허용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우리의 존재론을 극단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²⁸⁾

구체적 존재자로서의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을 수용하는 루이스의 경우, 딜레마의 두 번째 뿔을 거부함으로써 이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이론적 설명력과 존재론이 상충할 경우, 존재론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루이스는 설명적 기준의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경쟁 이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론적 장점을 지니며, 주의를 기울일만한 비판이라고 해봐야 사실 비판이라고도 할 수 없는

28) 선우환(2001)을 참고하라.

이른바 믿을 수 없다는 시선 *incredulous stare* 뿐이라면, 그리고 존재론적 기준에서 볼 경우, 구체적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질적으로 존재자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자들의 수만을 늘리는 것이라면, 그러한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누군가는 그 가치 때문에 대단히 비싼 값을 치루면서도 명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루이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을 받아들이는 이론은 비록 존재론적 대가는 비싸지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할 값어치가 있다.²⁹⁾

반면에 선우환의 경우, 존재론을 포기하는 대가가 루이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믿을 수 없다는 시선은 루이스가 생각하듯이 그리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비판이자 반론이다.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참된 양상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니는 존재론적 문제는 우리에게 과중한 존재론적 부담을 안긴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시키도록 요구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자세히 말해서, 구체적인 가능세계들과 구체적인 가능개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여태껏 아무런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존재자들을 받아들이게끔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들을 믿도록 강요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루이스 스스로가 믿을 수 없다는 시선이 지닌 존재론과 관련된 문제를 잘못 파악했다는 점이다. 선우환에 따르면, 루이스의 참된 양상 실재론이 요구하는 존재론이 지니는 문제는 질적으로 존재자를 늘리는지 아니면 단지 양적으로 늘리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존재자들의 수를 늘린다는 바로 그 점에 있다. 루이스의 이론이 갖는 이론적 설명력은 의미론적인 것이지 인과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과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설명력과 달리 의미론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설명력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29) Lewis(1986), pp. 133-135.

범주에 속한 존재자들의 수를 늘리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의미론이 우리의 존재론을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는 언제나 질적인 확장, 범주의 확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의미론이 존재론을 확장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는 집합론이다. 집합론이 수학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기초론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의미론적 고려는 집합이라는 존재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이 경우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던 존재자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론에는 없던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루이스의 경우, 의미론적 장점을 통해 존재론을 확장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확장의 방식이 범주가 늘어나는 식이 아니라 기존의 존재자들의 수를 확장시키는 방식이다.³⁰⁾

어쨌거나 믿을 수 없다는 시선과 관련된 존재론적 문제들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고, 루이스식의 이론이 요구하는 존재론과 관련된 비판이 그것이 지니는 설명적 측면과 비교하여 여전히 결정적인 반론이 될 수 없는 한, 루이스의 주장처럼,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유리한 입장에 서있는 듯 여겨진다. 가능세계 개념의 필수 불가결함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 양상에 대한 분석을 적용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론을 급격하게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을 (잠정적으로나마)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세계 개념의 필수 불가결성에 기대고 있는 루이스의 경제학적 논변이 지닌 실용적인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용적 힘을 누를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가능세계들을 받아들이는 이론 내부에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폭로하거나, 보다 더 결정적인 방식은 그러한 존재론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마찬가지로의 설명력을 지니는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뿐일 것이다.³¹⁾

30) 자세한 논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우환(2001), p.102-107을 참고하라. 이 부분 역시 의미론에서 제기되는 존재론적 문제가 단순히 메타논리학의 영역 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31) 존재론적 비용과 설명적 이익 사이의 손익을 고려하는 루이스의 경제학적 논변이 지니는 실용적 힘과 관련하여, 루이스의 논변에 대응하는 매력적인 이론이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능세계에 대한 반실재론적 입장으로 소개하기만 하고 그 이론

4. 가능세계에 관한 이론들과 메타논리학

우리는 집합론적 메타논리학이 부가하는 집합 존재론을 거부하고 논리학이 지닌 양상과 양상적인 논리적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메타논리학을 모색하기 위해서, 양상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데 사용되는 가능세계 개념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이론적 설명력과 존재론적 문제에 대한 고려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았던 양상 허구주의이다. 양상 허구주의는 루이스의 참된 양상 실재론이 부과하는 막대한 존재론적 비용은 아끼면서도 설명적 이익은 그 이론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양상 허구주의는 루이스의 논변이 지니는 지극히 실용적 측면에 대한 지극히 실용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루이스의 경제학적 논변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양상 허구주의 역시도 양상에 대한 올바른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양상 허구주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이론이기 때문이다. 루이스의 참된 양상 실재론이 지니는 이론적 장점은 양상에 대한 근본적으로 만족스러운 이론, 즉 존재론적 기준과 설명적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론이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는 논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지속될 뿐이다. 루이스의 경제학적 논변이 지니는 실용적 힘은 이러한 잠정적 상황에서 양상에 대한 분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러한 분석을 위한 가능세계 개념의 필수 불가결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발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루이스의 이론을 허구로 취급하면서도, 그러한 허구의 유용성을 통해 양상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는 양상 허구주의가 지니는 이론적 장점 역시도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허구주의의 전략은 참된 양상 실재론의 ‘잠정적인’ 비교우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이스의 이론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론적 기준과 설명적 기준 모두 만족시키는 이론이 등장한다면, 루이스의 경제학적 화법으로 이야기해서, 참된 양상 실재론의 값어치가 폭락함과 동시에 양상 허구주의의 값어치 역시 폭락하게 된다. 양상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루이스의 참된 양상 실재론이 지니는 이론적 장점들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이론들보다 선호될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동안에도 존재론적 측면과 설명적 측면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이론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양상 허구주의자들이 참된 양상 실재론이 지니는 이론적 장점을 취하면서도 그 존재론은 거부하도록 하는 허구주의를 주장하는 동안에도 양상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잠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족스러운 이론을 모색할 것이다. 이것이 양상 허구주의가 루이스의 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면서 동시에 만족스러운 이론은 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반면에, 뒤의 III, 2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선우환의 양상 준실재론 Modal Quasi-Realism은 양상 허구주의와는 달리 매우 근본적인 방식으로 루이스의 경제학적 논변을 격파하며, 양상에 대한 만족스러운 방식의 분석을 제공한다.

이러한 비교에 따르면, 양상 개념을 명료화하고 양상 일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에 대한 양화가 필수적이지만 그러한 양화를 허용하는 이론은 우리의 존재론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수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최선의 이론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가능세계를 양상을 표상하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자들로 고려하는 이론들이나 가능세계에 대한 반실재론적 이론들은 구체적인 가능세계들에 대한 양화를 허용하는 이론에 비해 덜 급진적인 존재론을 요구하지만 반대로 설명적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가능세계에 대한 이론을 논리적 측면, 즉 논리학의 필연성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양상과 관련된 논리학적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상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이론을 수용할 경우, 우리는 또 다시 존재론적 보수성을 기준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세계에 관한 실재론적 입장은, 그것이 구체적인 추상적이건 간에,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게 된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존재자들에 대한 믿음과 이론에서 요구하는 존재론의 수정과 관련된 문제, 즉 상대적인 방식의 존재론적 고려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과 보편적 적용 가능성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론을 받아들이더라도 논리학이 참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존재론의 가볍고 무겁고를 ‘측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 때문에 가능세계들을 기존의 존재론적 함축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할 경우, 논리학의 필연성을 논리학의 진리들이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참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배중률(Law of Excluded Middle) $P \vee \neg P$ 를 고려해 보자. 우리가 배중률을 필연적 진리라고 여기는 이유는 도식 문자 P 에 어떠한 진술 혹은 문장이 대입되더라도 배중률의 대입사례들이 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종류의 추상적 존재자들을 거부하는 유명론자들의 주장이 참인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 세계가 어떠한 추상적 존재자들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라고 가정해 보기

로 하자. 그러한 세계에서는 추상적 존재자로 적절하게 정의된 가능세계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세계에서도 논리학의 진리들은 여전히 참일 것이다. 유명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현실 세계가 유명론적인지 아닌지의 우연적 문제는 논리학의 필연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논리적 진리’라는 단어에는 바로 이러한 무제한적unrestricted 의미, 존재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만일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가 추상적 존재자들의 존재를 배제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형이상학적 차원에서는 추상적 존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가능성은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가장 넓은 범위에 있는 무제한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학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존재자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논리학의 양상을 만족스럽게 다루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추상론적abstractionist 가능세계 개념들에조차 의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양상 일반에 관한 이론들 중 설명적 기준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참된 양상 실재론이 부가하는 존재론은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참된 양상 실재론이 다른 이론들에 비해 더 무거운 존재론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논리학을 너무나 제약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해서,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은 논리학이 특정 분야 혹은 특정 영역에 적용될 경우, 논리학이 대상으로 하는 모든 가능한 대상들의 영역, 즉 가능세계들의 범위가 그 특정 영역인 세계들이 전부로서 고려되도록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³²⁾ 그리고 그렇게 고려된 세계들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존재자를 추가적으로 부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논리학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은 논리학 자체가 고려하는 가능성의 범위가 (존재론적 함축이 배제된 중립적 의미에서) 모든 가능한 대상들, 모든 가능세계들과 모든 가능개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가능한) 존재자들에 대해서도 논리학의 진리들이 성립한다

32) 이러한 직관은 오늘날의 메타논리학에서 모형 M 에 속한 영역(domain) $|M|$ 의 크기가 해석에 따라서 변하는 것(varying domain)으로 반영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리학의 대상들인 가능성 전체, 즉 논리적 가능성의 범위를 제약하는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이론도 논리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논리학의 필연성을 고려할 때 얻을 수 있는 양상 일반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다.

논리학이 본성적으로 양상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많은 수학자들과 논리학자들, 그리고 논리철학자들이 가능세계 담론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도, (그들이 명시적으로는 이를 자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논리학의 양상과 관련하여 가능세계라는 존재자를 통한 양상에 대한 분석이 적어도 메타논리학의 영역에서는 조화롭게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드 역시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그가 보기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메타논리적 개념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집합론적 방식을 수용하는 이유는 일견 이러한 개념들을 가능성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가능 세계들을 통해서 설명되면 이러한 시도도 결국에는 최소한 집합론적 설명만큼이나 이상한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다.³³⁾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집합론을 사용한 오늘날의 메타논리학은 집합 존재론을 부가하여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게 되고, 이는 논리학이 주제 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사실과 양립 가능하지 않다. 이는 집합론적 메타논리학이 집합들로 이루어진 담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의 한 분야로서의 논리학에 대한 수리적 이론으로 간주되면 몰라도 논리학의 기초를 제공하는 메타이론, 즉 논리학에 대한 올바른 논리적 분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아가 집합론적 메타논리학은 논리학의 양상과 양상적인 다양한 논리적 개념들에 대한 통합적 이론으로서도 적절하지 못하다. 논리학의 양상적 특징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서 가능세계 개념이 요구되고, 특히 구체적인 가능자들에 대한 양화를 요구한다. 하

33) Field(1989), p. 76.

지만 구체적인 가능세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참된 양상 실재론은 우리의 존재론을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변화시킨다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지닐 뿐만 아니라 논리적 측면에서도 가능세계에 대한 실재론은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메타논리학에 수용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론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논리학의 양상에 대한 만족스러운 이론, 특히 논리학의 필연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메타논리학이 없다는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논의는 바람직한 메타논리학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이 논리학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하지는 않는다.

III. 양상과 존재론

이제부터 메타논리학에서 구체적인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에 대해서 양화를 허용하면서도,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도록 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

1. 원초적인 것으로서의 양상

필드는 메타논리학에 수학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통념 내지는 최소한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에서의 표준적인 견해에 반대하면서, ‘인위적인 artificial’ 집합론적 방식이 아니라 보다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양상에 호소함으로써 논리적 개념들을 다루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면서도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유에서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가능세계 개념을 수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는 인식론과 지시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추상적 존재자로서의 가능세계들이 수학적 존재자들보다 결코 문제가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명론을

지지하는 그가 추상적 존재자로서의 가능세계를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그는 현실 세계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가능세계를 수용하는 일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데, 이 점은 구체적인 가능자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존재론적 거부감이 얼마만큼 큰지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³⁴⁾ 어쨌거나 그는 기존에 제시된 주요한 양상에 대한 가능세계 실재론들을 거부하면서, 양상을 원초적인 것으로서 취급할 것을 제안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부정 연산자negation operator나 존재 양화사 등이 다른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상 연산자 역시 다른 용어들을 통해서 정의될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가 가능성을 가능세계들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고 양상 연산자를 논리학의 원초적 부분으로 간주하면, 가능성을 통한 메타논리학적 개념들을 집합론적 메타논리학과 비교하여 훨씬 직관적으로 올바르게 다룰 수 있다.³⁵⁾

내가 보기에 이러한 필드의 생각은 한 측면에서는 옳고 다른 측면에서는 틀렸다. 그는 메타논리적 고려가 양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양상에 대한 고려가 우리에게 가능세계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상이 원초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원초적 양상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메타논리학이 특정한 존재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논리적 필연성과 양상적 특성을 지닌 논리적 개념들을 비양상적인 것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다룰 수 있는 이론은 양상을 원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논리학에 대한 고려는 가능성을 원초적인 것으로 파악하게끔 하는 좋은 동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는 양상을 원초적인 것으로 고려하면서도, 원초적인 것으로서 양상 연산자 ‘필연적이다It is necessary that’(기호로는 □)를 받아들인다는 점

34) 필드는 루이스의 참된 양상 실재론에 대해서 ‘유난히도 그럴듯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비록 루이스의 이론에서도 가능세계들은 추상적 존재자들이 아니고 이는 추상적 존재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유명론자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지시가 수들numbers에 대한 것만큼이나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Field(1989), p. 75을 보라.

35) Field(1989), pp. 76-77을 참고하라.

에서 나는 그의 양상 원초론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 물론 그가 ‘양상 연산자가 원초적이다’라고 할 때, 필드는 우리가 앞서 가능세계에 대한 반실재론 중 하나로 소개했던 양상론Modalism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필연성 연산자 $\Box$ 에 해당하는 ‘필연적이다It is necessary that’를 ‘논리적 참이다It is logically true that’로 그리고 ‘가능적이다It is possible that’를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다It is logically consistent that’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산자들은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원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⁶⁾

사실 필드의 경우, 물리학에 수학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수학적 존재자들은 존재한다는 과인-퍼트남 논증 혹은 필수 불가결성 논증에 대해 자신의 유명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장선상에서 메타논리학에서의 수학적 존재자들의 문제를 고려한다. 왜냐하면 설사 물리학을 유명론화하는 것에 그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메타논리학에서는 집합론이 필수 불가결하므로 유명론은 틀렸다고 누군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메타논리학에서 수학적 존재자들이 필수불가결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메타논리학을 유명론화하기 위해서 양상에 대한 원초론을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양상 연산자를 메타논리학에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제한적 용법을 지닌 논리적 장치로 삼아서 오직 메타논리학적 주제에만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제약적 성격으로 인해서 그의 입장은 현재 우리의 논의에서 고려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메타논리학을 유명론화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앞서 논리학의 양상을 개념적으로 큰 간극을 지니는 집합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현행의 메타논리학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필드 스스로도 집합론을 통한 메타논리학이 ‘인위적’이라고 한만큼 이러한 비판에 적극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제약적인 것으로서의 논리학의 양상과 그 밖의 일반적인 양상을 구별한 뒤, 그 특수한 종류의 ‘양상’을 통해서 메타논리학을 유명론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36) Field(1989), pp. 30-45를 참고하라.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원초어로 간주하는 양상 연산자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양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논리학에 특유한 양상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그의 ‘해법’ 자체도 집합론을 통한 메타논리학만큼이나 인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메타논리학에서의 양상에 대한 필드 자신의 주장은 미봉책ad hoc에 불과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논리학의 특성들을 양상 개념 일반과 관련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명료화할 수 있는 메타논리학이다.

집합론을 배제한 메타논리학과 관련하여 필드의 자신의 이론 자체는 현재 우리의 논의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가 양상을 원초적인 것으로 파악하면 존재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파악한 것은 값진 통찰이자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에서 양상을 원초적인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보장하면서도 논리학의 양상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논리학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양상 이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론은 선우환에 의해서 ‘양상 준실재론Modal Quasi-Realism’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다.³⁷⁾ 우리는 먼저 양상 준실재론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에 이 이론과 메타논리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양상 준실재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상과 관련된 많은 담론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능세계 개념이 필수 불가결하다. 특히 반사실적 조건문이나 양상 비교문 등을 만족스럽게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양상 개념들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에 대한 양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가능세계와 가능개체들의 존재를 주장하는 루이스의 참된 양상 실재론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이론이다.³⁸⁾

37) Sunwoo(2000)

38) 구체적인 존재자로서의 가능세계들에 대한 실재론적 입장은 먼저 Lewis(1973)의 4장 1절에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그의 형이상학적 주장이 ‘참된 양상 실재론Genuine

사실 참된 양상 실재론은 양상적 추론을 다루기 위한 루이스 자신의 논리학 이론으로부터 함축되는 가능세계 존재론에 대한 입장이다. 그는 내포 연산자 ‘가능적으로(it is possible that 혹은 기호로 $\Diamond$)’와 ‘필연적으로(it is necessary that 혹은 기호로 $\Box$)’를 원초어로 포함하는 1차 논리학의 보존적 확장 체계인 양화 양상 논리학(quantified modal logic) 대신에 양화 논리학의 이론으로서 상응자 이론(Counterpart Theory)을 제안한다.³⁹⁾

이 이론은 표준적인 1차 술어 논리학 체계에 “가능세계이다(is a possible world, 기호로는 Wx)”, “세계 안에 있다(is in possible world, 기호로는 Ixy)”, “현실적이다(is actual, 기호로는 Ax)”, “상응자이다(is a counterpart of, 기호로는 Cxy)”라는 네 가지 원초 술어들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공준들(postulates)을 추가한 1차 이론 1st-order theory이다. 그래서 자연히 상응자 이론에서는 양화의 논 의 영역 domain or universe of discourse에 모든 가능세계들과 그 세계들 안에 있는 가능 개체들이 포함되며, 상응자 이론의 공준들은 이러한 가능 세계들과 가능개체들이 구체적 concrete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⁴⁰⁾ 그 결과 이 이론의 표현력은 양화 양상 논리학을 넘어서며, 다양한 양상적 개념들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이론적 장점을 지닌다.

Modal Realism’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정당화된 것은 Lewis(1986)를 통해서이다.

39) Lewis(1968)를 참고하라.

40) Lewis(1968)에 제시된 상응자 이론(Counterpart Theory)의 공준들은 다음과 같다:

P1: $\forall x \forall y (Ixy \supset Wy)$ (Nothing is in anything except a world)

P2: $\forall x \forall y \forall z (Ixy \& Ixz. \supset y = z)$ (Nothing is in two worlds)

P3: $\forall x \forall y (Cxy \supset \exists z Ixz)$ (Whatever is a counterpart is in a world)

P4: $\forall x \forall y (Cxy \supset \exists z Iyz)$ (Whatever has a counterpart is in a world)

P5: $\forall x \forall y \forall z (Ixy \& Iyz \& Cxz. \supset x = z)$ (Nothing is a counterpart of anything else in its world)

P6: $\forall x \forall y (Ixy \supset Cxx)$ (Anything in a world is a counterpart of itself)

P7: $\exists x (Wx \& \forall y (Ixy \equiv Ay))$ (Some world contains all and only actual things)

P8: $\exists x Ax$ (Something is actual)

루이스는 상응자 이론의 이러한 탁월한 이론적 장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 세계 외에도 수많은 구체적인 ‘가능세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다수 세계 논제(thesis of plurality of worlds)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논증을 펼치며, 가능세계에 대한 그의 이러한 입장에 ‘참된 양상 실재론’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1차 이론인 상응자 이론은 현실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자들로서의 가능한 존재자들까지 전부 논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꼬리 없는 쾡거루, 푸른 백조, 말하는 당나귀 등이 현실적인 쾡거루와 백조 그리고 당나귀들과 마찬가지로의 존재론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실재에 대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참된 양상 실재론의 이러한 존재론적 특징이야말로 그 이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참이라고 믿기 어렵도록 만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양상을 고려할 때,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에 대해서 우리 세계와 우리 세계 내의 개체들과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우리가 ‘문재인이 18대 대선에서 승리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려중인 문재인과 박근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사실 현실적 존재자들 그리고 현실 세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루이스의 참된 양상 실재론을 명백하고 압도적인 이론적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극도로 꺼리는 이유는 그 이론이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세계들과 개체들을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구체적인 세계들과 개체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 양화사 ‘there is something x such that’ 대신에 원초적 양상 존재 양화사 ‘there could have existed something x such that’을 논리상향으로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변항의 값이 되는 대상들에 대해 양화하면서도 존재론적으로는 개입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양상 양화사를 사용한 문장은 그러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그러한 것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말할 뿐이고, 양화사의 논리적 기능은 존재자들에 대한 양화일 뿐, 표준적인 존재 양화사와 같

이 그 양화사의 의미가 존재론적 함축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상 준실재론은 우리가 앞서 논의한 바대로 루이스의 참된 양상 실재론이 지니는 근본적인 결함으로 간주되는 가능자들에 대한 존재론적 함축을 지니도록 만드는 원천인 상응자 이론의 양화사, 즉 1차 술어 논리학의 존재 양화사인 ‘There-is-something x such-that’을 거부하고, 대신에 양화사 자체가 양상을 지니고 있는 양상 양화사 ‘there-could-have-existed-something x such-that’을 원초어로서 도입하는 형식 체계⁴¹⁾가 함축하는 가능세계 형이상학의 반실재론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 논리학의 존재 양화사와 비교할 경우, 원초적 양상 양화사는 의미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논리적으로 어떠한 차이점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상 준실재론은 구체적인 가능 세계들과 가능 개체들에 대하여 양화함으로써 참된 양상 실재론의 이론적 장점들을 고스란히 지니면서도 표준 논리학의 양화사를 양상 양화사로 대체함으로써 구체적인 ‘가능자들’에 대하여 존재론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차별화된 장점까지도 지니게 된다.⁴²⁾ 왜냐하면 양상 준실재론자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존재했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⁴³⁾

양상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서의 참된 양상 실재론의 실패 혹은 양상 준실재론의 성공이 함축하는 바는 (i) 양상은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과 (ii) 세계는 우리가 이해한바 그대로의 구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가능세계들을 추상적인 존재자로 간주하는 대응적 이론들(ersatz theories)은 (ii)를 담지하지

41) 이를 선우환은 ‘양상 준실재론적 상응자 이론the modal quasi-realist counterpart theory’이라고 부른다. Sunwoo(2000), p. 97.

42) 존재론의 측면을 제외하고 양상 준실재론이 참된 양상 실재론이 지니는 장점을 모두 지닌다는 점은 Sunwoo(2000), pp. 35-38을 참고하라.

43) “구체적인 가능세계들과 가능개체들이 존재했었을 수 있었다”는 표현이 어떤 대상들, 즉 단지 가능하기만 한 것들(merely possible objects)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양상 준실재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가능자들에 대한 언급은 단지 습관화된 말투(facon de parler)에 불과하며, 존재론적 개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양상 준실재론자들의 공식적인 답변은 양상 양화사 ‘there could have been x’가 열린 문장 ‘- x -’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Sunwoo(2000), pp. 41-49와 pp. 105-106을 참고하라.

못했기 때문에 양상을 온전히 분석하지 못한다. 반면 참된 양상 실재론은 가능세계들을 세계들로 환원시킴으로써 (i)을 위반하기 때문에 개념적 간극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존재론적 문제를 지니게 된다. 반면에 양상 준실재론은 가능세계에 관한 이론들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즉 앞서 우리가 ‘양상 이론의 딜레마’라고 소개했던 어려움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며, 루이스의 경제학적 논변, 즉 값비싼 존재론적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참된 양상 실재론이 제공하는 이론적 장점과 비교하면 그 대가는 정당하기 때문에 참된 양상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변에 대한 가능세계 반실재론적 입장에서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비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양상 준실재론은 존재론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존재론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상과 관련된 여러 담론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 명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이며, 따라서 존재론적 대가와 이론적 설명력의 이익 사이에서 저울질 할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해주는 이론이다.⁴⁴⁾

44) 한 심사자는 양상 이론들이 직면하는 딜레마 상황을 양상 준실재론이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원초적 양상 양화사의 도입인데, 그것에 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다른 경우 원초적 양상 양화사의 도입이 미봉책 *ad hoc*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접할 수 있었다. 나는 양상을 원초적인 것으로 파악할 좋은 동기가 있음을 필드의 논의를 통해서 보였으며, 양상 양화사를 도입하는 것이 이러한 동기를 이론적으로 가장 만족스럽게 다루도록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선우환의 양상 준실재론을 소개하였다. 비록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된 원초적 양상 양화사와 관련된 논의가 본 논문의 목적에 비추어 충분하며 혹은 최소한 필요한 것보다 부족한 수준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양상 준실재론에 대한 부당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사전 작업 격인 선우환(2001) 이후 소식이 없던 양상 준실재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 이론의 제안자인 선우환 교수에 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내에 공개되어 양상 준실재론이 지니는 장점이 온전히 소개됨으로써, 필자가 부득이 이 이론을 먼저 소개하였기에 빚어졌을지 모를 양상 준실재론이나 원초적 양상 양화사에 대한 여러 오해들과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3. 양상 준실재론과 메타논리학

우리는 양상 준실재론이 근본적인 방식으로 양상 이론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최선의 이론임을 논의하였다. 양상 준실재론이 양상 형이상학과 관련된 이와 같은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원초적 양상 양화사 덕분이라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원초적 양상 양화사는 논리학의 양상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면서도 어떠한 존재론적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메타논리학을 위해 필수적인 논리적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논리학의 양상을 일반적 양상 이론과 관련해서 양상 준실재론적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메타논리학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집합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존재론적으로 보수적인 올바른 메타논리학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가능세계들의 존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참된 양상 실재론과 마찬가지로의 이론적 장점, 즉 구체적인 세계들에 대한 양화를 허용하는 양상 준실재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메타논리학에서 양상과 관련된 논리적 개념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큰 장점을 부여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논리적 귀결(logical consequence) 개념과 같이 메타논리학에서 해명해야만 하는 양상과 관련된 논리적 개념들은 가능세계 개념을 사용하여 양상 개념들을 체계화하고 명료화하는 일반 이론을 통해서 정의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존재자이건 추상적인 존재자이건 간에 가능세계들의 존재에 개입하는 것은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양상 준실재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양상 이론의 딜레마를 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상적 개념과 관련된 이러한 메타논리학에서의 딜레마 역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논리적 귀결 개념을 예로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메타논리학에서의 양상과 존재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통적인 메타논리학, 즉 집합론을 사용하는 메타논리학에서 논리적 귀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모형론적 귀결 model-theoretic consequence] 정식 ϕ 가 정식들의 집합 Γ 의 논리적 귀결일 필요충분조건은 Γ 의 모든 원소들을 만족시키면서 ϕ 를 만족시키는데 실패하는 어떠한 모형(혹은 해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Γ 의 모든 원소들이 참인 모든 모형(혹은 해석) 하에서 ϕ 가 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모형이란 집합을 통해서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형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 귀결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집합론적 존재자들을 가정하게 되며 따라서 반드시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과는 독립적으로 몇몇 철학자들은 타르스키 식의 모형론적 귀결 개념이 지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논리적 귀결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양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⁵⁾ 이 때문에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지 않는 메타논리학을 모색한다면, 논리적 귀결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차라리 직관적이고 전통적인 방식, 즉 양상에 호소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⁴⁶⁾

[양상적 귀결 modal consequence] ϕ 가 Γ 의 논리적 귀결일 필요충분조건은 Γ 의 원소들이 참이면서 ϕ 가 거짓인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ϕ is a logical consequence of Γ if and only if it is not possible for the members of Γ to be true and ϕ false).

45) 타르스키의 논리적 귀결 개념은 Tarski(1936)를 참고하라.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잘 알려진 비판자는 에체멘디 Etchemendy이다. 타르스키의 논리적 귀결 개념에 대한 비판과 양상의 수용에 관해서는 Etchemendy(1990), Shapiro(1998), Shapiro(2002), Shapiro(2005)를 참고하라. 에체멘디의 경우, 타르스키식의 논리적 귀결 개념을 의미론과 관련하여 비판하고 표상적 의미론과 관련해서 양상을 주장하는 반면, 샤피로는 모형론적 귀결개념과 직관적 의미에서의 논리적 귀결 개념이 포착해야 하는 여러 특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논리적 귀결에 대한 정의가 양상을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46) 샤피로는 이러한 분석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까지 소급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Shapiro(2005), p. 654를 참고하라.

그리고 차례로 양상에 대한 일반적인 가능세계 분석(possible world analysis)을 위의 양상적 귀결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을 얻게 된다:

[가능세계 귀결possible world consequence] ϕ 가 Γ 의 논리적 귀결일 필요충분조건은 Γ 의 모든 원소가 참인 모든 가능세계에서 ϕ 가 참이라는 것이다 (ϕ is a logical consequence of Γ if and only if ϕ is true in every possible world in which every member of Γ is true).⁴⁷⁾

가능세계를 통한 위와 같은 논리적 귀결 개념에 대한 분석은 이른바 해석된 정식(interpreted wff)에 대한 표상적 의미론representational semantics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⁸⁾ 이러한 분석은 메타논리학에서 수학적 개념인 모형을 수학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대체시켜주고 의미론을 보다 명료화된 방식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가능세계를 역시 존재론적으로 무고한 논리적 존재자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럴듯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가능세계에 대한 양상 준실재론적 설명은 가능세계를 통한 논리적 귀결 개념에 대한 분석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가능세계들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존재론적 부담을 일소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논리적 귀결 개념에 대한 가능세계 분석의 양상 준실재론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양상 준실재론적 귀결 modal quasi-realist consequence] 문장 ϕ 가 어떤 문장들 Γ 의 논리적 귀결일 필요충분조건은 문장들 Γ 가 참이면

47) 물론 우리는 논리적 귀결 개념을 분석하고 정의하는데 있어서 모형(model) 개념에 호소하는 것 외에도 ‘원소(member)’와 같은, 정의항(definians)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집합론의 어휘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복수지시plural reference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히 제거될 수 있다.

48) 에체멘디는 해석적 의미론과 표상적 의미론을 구별한다. 각각 Etchemendy(1990)의 2장과 4장을 참고하라.

서 ϕ 가 거짓인 어떠한 세계도 존재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A sentence ϕ is logical consequence of some sentences Γ if and only if there could not have been any world in which Γ is true and ϕ false).⁴⁹⁾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전통적인 메타논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론적 귀결 개념은 사실 집합 개념을 통해서 가능세계들을 모의하는 simulate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귀결 개념이 지니는 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상 준실재론적 귀결은 기존의 집합론적 메타논리학의 귀결 개념에 대한 분석이 지니는 이러한 양상을 가능세계에 대한 존재론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가능세계들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양상 준실재론을 통해서 가능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피해 가는 위의 정의는 사실 그 자체로는 논리적 귀결 개념에 대한 완전한 정의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메타논리학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논리학의 언어는 해석되지 않은 비논리적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논리적 어휘들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능세계들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표상적 의미론을 제시하는 위의 정의는 논리적 귀결 개념에 대한 완전한 정의가 될 수 없다. 논리적 귀결 개념은 추론에 관한 학문인 논리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 개념의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자체가 논리학과 논리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논리적 귀결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와 이 개념에 대한 완전한 정의는 집합론을 사용하지 않는 메타논리학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현재로서는 논리적 귀결 개념을 예로 들어, 메타논리학에서 정의내리고 규정해야 하는 논리적 개념들 중 양상과 연관된 개념들에 대해서 원초적 양상 양화사를 도입한 메타논리학이 어떻게 가능세계에 관한 존재론적 부담은 줄어지지 않으면서도 논리학의 양상적 특징을 양상 일반과 관련하

49) 원초적 양상 양화사를 통한 이러한 정의와 이런 식의 정의가 지니는 장점들은 Sunwoo(2000)의 VII, 2. Meta-logic and the Modal Quantifier를 참고하라.

여 통합적인 방식으로 만족스럽게 제시할 수 있는 지를 부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IV.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메타논리학의 차원에서 논리학과 존재론 그리고 양상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존재론과 무관하게 여겨졌던 논리학은 메타논리적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존재론의 문제를 끌어안게 되며, 따라서 논리학의 존재론과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는 철학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 때 주제중립성과 보편적 적용가능성이라는 논리학에 고유한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이 논리학과 관련된 존재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의 고려하게 되면, 기존의 메타논리학, 즉 집합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위 수리 논리학은 논리학을 올바르게 규정하기 위한 철학적 의미에서의 참된 메타논리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메타논리학의 차원에서 논리학과 존재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논의에 더하여, 메타논리학이 논리학의 양상을 만족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 이 때 논리학의 양상을 메타논리학에서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집합 개념을 통한 정의와 해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양상 일반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참고하여 메타논리학에서 논리학의 양상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이 경우, 양상에 대한 포괄적 시도를 가능하게끔 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능세계 형이상학의 여러 이론들이 부가하게 되는 존재론은 어쨌거나 메타논리학을 위하여 집합론적 메타논리학 이상의 존재론적 장점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상을 다루기 위한 시중에 잘 알려진 가능세계 분석들이 논리학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메타논리학이 수용할 수 있는 것

들의 전부가 아니며, 양상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면서 동시에 논리학의 양상에 대한 올바른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 양상 준실재론이 존재함을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양상 준실재론적 접근을 수용하면 메타논리학의 의미론에서 포함하게 되는 존재자들이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을 위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것은 양상 자체를 원초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시도에 의해서 가능해 진다. 원초적 양상 양화사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논리학과 존재론 그리고 양상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면서도 기존의 접근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 메타논리학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철학적 고려들을 바탕으로 집합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철학적 관점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메타논리학을 제시하는 일이 다른 기회를 통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수휘 (2010a) “집합론은 메타논리학에 필수불가결한가?”, 『한국수학사학회지』 제23권 제2호, pp. 23-56.
- 강수휘 (2010b) “논리학의 존재론적 보수성과 부분전체론”, 『논리연구』 제13집 제2호, pp. 167-201.
- 선우환 (2001) “양상 이론의 딜레마”, 『철학적 분석』 제 3호, pp. 85-111.
- Adams, Robert M. (1974) “Theories of Actuality”, *Noûs*, Vol. 8, No. 3, pp. 211-231; reprinted in Loux(1979).
- Etchemendy, John (1990) *The Concept of Logical Consequence*, reprinted in CSLI Publications, 1999.
- Field, Hartry (1980) *Science without Numb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82) “Realism and Anti-Realism about Mathematics”, *Philosophical Topics* 13, pp. 45-69.
- _____ (1989) *Realism, Mathematics and Modality*, Blackwell Publishers.
- Forbes, Graeme. (1985) *The Metaphysics of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Hunter, Geoffrey. (1971) *Metalogic: An Introduction to the Metatheory of Standard First Order Logic*,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cquette, Dale., eds, *A Companion to Philosophical Logic*, Oxford, Blackwell.
- Lewis, David K. (1968) “Counterpart Theory and Quantified Modal Logic”, *Journal of Philosophy* 65, pp. 113-126, in Lewis(1983).
- _____ (1973) *Counterfactuals*, reissued by Blackwell Publishers 2001.
- _____ (1983) *Philosophical Papers*, Volume 1,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On the Plurality of Worlds*, Oxford: Blackwell.
- Loux, Michael. (1979) *The Possible and the Actua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Ockham, William., *Ockham's Theory of Terms: Part I of the Summa Logicae*, translated by Michael J. Loux, 1998, St. Augustine's Press.
- Plantinga, Alvin. (1974) *The Nature of Necessity*, Oxford University Press.
- Quine, Willard Van Orman (1948) "On What There Is", Review of Metaphysics 2, pp. 21-38.
- _____ (1951) "Two Dogmas of Empiricism", The Philosophical Review 60, pp. 20-43
- _____ (1980)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Secon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en, Gideon (1990) "Modal Fictionalism", Mind 99, pp. 327-354.
- Schirn, Matthias., eds. (1998)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Today*, Oxford University Press.
- Shapiro, Stewart (1998) "Logical Consequence: Models and Modality", in Schirn(1998).
- _____ (2002) "Necessity, Meaning, and Rationality: The Notion of Logical Consequence", in Jacquette(2002).
- _____ (2005a) "Logical Consequence, Proof Theory, and Model Theory", in Shapiro(2005b).
- _____ eds. (2005b)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Mathematics and Logic*, Oxford University Press.
- Spade, Paul Vincent (1994) *Five Tests on the Mediaeval Problem of Universals*,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_____ (2002) *Thoughts, Words and Things: An Introduction*

to Late Mediaeval Logic and Semantic Theory, http://pvspade.com/Logic/docs/Thoughts,%20Words%20and%20Things1_2.pdf

Stalnaker, Robert (1976) "Possible Worlds", *Noûs* Vol. 10, No. 1, pp. 65-75.

Sunwoo, Hwan (2000) *Modality and Quantification: The Modal Quasi-Realist Approach*,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Van Inwagen, Peter (1986) "Two Concepts of Possible World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1, No. 1, pp. 185-213.

연세대학교

Email: leonardowhee@hanmail.net

